



한·중인쇄교류회의

“상호협력 통해 세계인쇄 선도하자”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중국인쇄기술협회의 교류협정에 따라 중국 대표단이 지난 5월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초청으로 무문상 중국인쇄 기술협회 이사장과 심충강 고문, 김의천 중국신문출판서(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처장 등으로 구성된 중국인쇄 대표단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한·중인쇄협회간 교류 회의와 인협 주최의 환영만찬, 교학사 등 인쇄업체 방문, 청주고인쇄박물관 방문, 인쇄연합회·서울인쇄정보조합·인쇄기술협회 주최의 환영식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대표단은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과 오세익 전무이사, 박충일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 고수근 대한인쇄연구소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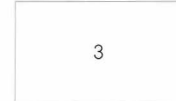
사장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중국 대표단은 고양시로 이동, 환영나온 인사들과 점심 식사를 한 후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교류회의 및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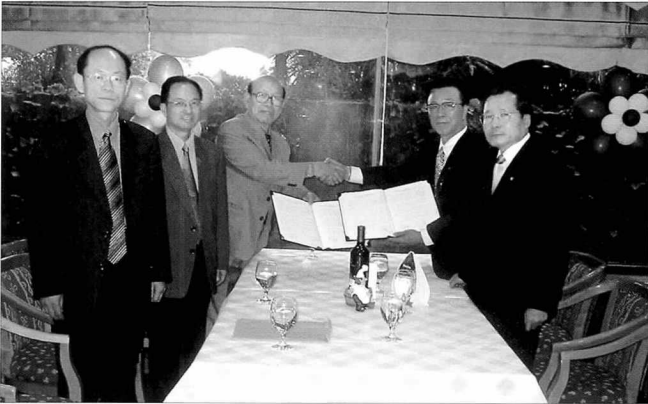
이날 환영만찬에는 홍우동 인협회장과 최창근 인쇄연합회 회장, 이충원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민재기 인협 명예회장, 김지승 인쇄연합회 전회장, 민창준·조만영 인협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환영만찬에서는 홍우동 회장의 환영사와 무문상 이사장의 답사, 선물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홍우동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 동안 우리는 상호 방문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행사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쇄업체들의 중국진출도 증가



1. 인협주최 환영만찬에서 홍우동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 12일 인협주최의 환영만찬 기념촬영모습 3.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대표단 기념촬영 4. 홍우동 인협회장과 무문상 중국인쇄기술협회 이사장이 비망록을 교환하고 있다. 5. 교학사를 방문한 중국대표단



홍우동회장 환영사

한·중인쇄협회의 교류협정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무문상 중국인쇄기술협회 이사장님과 대표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국 인쇄협회가 공동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정을 맺은 지도 어언 1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제 교류는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이며 실현 가능한 내용과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결실을 얻고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상호 방문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행사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쇄업체들의 중국 진출도 증가하고 기자재의 교역도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인쇄문화 발전은 물론 아시아 인쇄, 더 나아가 세계 인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는 인쇄기술이 탄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종이와 금속활자를 발명한 인쇄종주국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세계 인쇄역사는 서양의 인쇄술만 강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인쇄협회가 합심 협력하여 세계 인쇄역사를 바로잡고 새롭게 조명하는 노력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무문상 이사장님과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한국 인쇄업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세계는 일일 생활권으로 좁아졌고 경제도 국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손을 잡아야 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쇄는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상호 보완해 주고 장점은 공유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 인쇄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즐거움을 함께 하면 배가되고 슬픔을 함께 하면 반으로 줄어 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한·중인쇄협회의 교류협정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양국 인쇄협회가 언제 어디서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양국의 인쇄문화는 종이와 인쇄의 발상지라는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자리가 양국 인쇄업계 발전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에 머무르시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일정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대표단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1. 홍우동 회장과 무문상 이사장, 2. 최창근 회장과 무문상 이사장
3. 이충원 이사장과 무문상 이사장 4. 민재기 명예회장과 무문상 이사장
5. 김직승 전 인쇄연합회장과 무문상 이사장
6. 인쇄연합회 주최 환송 만찬모습
7. 서울조합주최 환영만찬 모습
8. 인쇄기술협회 주최 만찬후 기념촬영
9.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하여 기념촬영
10. 서재학 관장과 심충강 고문이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다.



무문상 이사장 답사

봄 기운이 만연한 아름다운 계절에 중국인쇄업계가 친절한 한국인쇄업계를 방문,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인쇄업계를 대표하여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열정적인 접대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한국인쇄업계 대표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 당시, 중국인쇄기술협회 이사장이었던 왕지고 선생과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이었던 박충일 선생이 한중교류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친선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정기적인 상호 교류로 합작과 공동 관심사에 협력하여 세계 인쇄업계에 두 나라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쇄업계를 대표해 세번째로 한국에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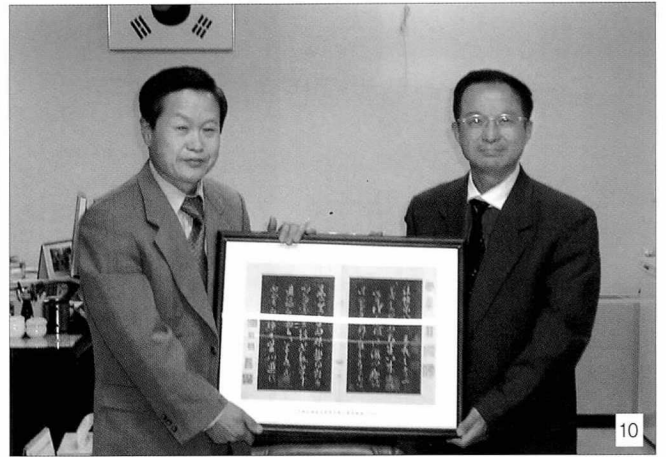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님과 민재기 명예회장님, 최창근 인쇄연합회 회장님, 김직승 전연합회 회장님, 이충원 서울인쇄조합

이사장님, 박충일 기술협회 회장님 등 한국 인쇄업계 옛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인쇄업계는 2005년에 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는 필승이 한자인쇄를 발명한 이래 2차 인쇄기술혁명으로 여겨집니다. 2010년에는 중국을 전세계에서 중요한 인쇄생산지, 세계 인쇄강국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데 아직 인구당 인쇄물 소비량은 적은 편입니다. 인쇄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홍우동 회장님과 한국 인쇄계 지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양국 인쇄업계 및 기기업계의 발전을 위한 합작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자재의 교역도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양국 인쇄문화 발전은 물론 아시아 인쇄, 더 나아가 세계 인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무문상 이사장은 답사를 통해 “중국은 인구가 많은데 아직 인구당 인쇄물 소비량은 적은 편”이라면서 “중국이 인쇄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 인쇄인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13일 교학사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첨단 인쇄시설을 견학하는 한편 교학사 주최의 오찬에 참석했다. 이어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박충일 회장 주최의 만찬에 참석했다.

14일에는 출판단지를 둘러보고 통일전망대를 방문했다. 15일에는 양국 협회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7개항으로 작성된 비망록을 작성, 교환했으며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충원 이사장이 한국의 집에서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16일에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을 방문, 서재학 관장의 안내로 박물관을 돌아보고 저녁에는 인쇄연합회 주최의 만찬에 참석했다.

비 망 록

1. 1997년에 양국 인쇄협회가 체결한 협정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며 앞으로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 양측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체제를 유지하며 자국의 인쇄업 발전현황과 전략적 구상을 통보하며 상호 관심분야의 프로젝트에 관하여 합작하고 기술연구에 공동 노력한다.
3. 양국 인쇄기업 간의 상호 참관을 통해 서로 배우고 합작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4. 양국 협회는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인쇄전시회에 상대국 참관단을 초청하며 양국 협회는 참관단을 구성하여 파견한다.
5. 디지털인쇄 · CTP · 인쇄후공정 등 전문성있는 기술교류를 활성화한다.
6. 국제활동에서 교류를 강화하며 아시아와 세계인쇄계의 단결, 합작을 위해 노력한다.
7. 양국 인쇄역사를 존중하고 인쇄역사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자료를 교환하는 한편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홍우동
중국인쇄기술협회 이사장 무문상